



‘2016 한국의 미래를 빛낼 CEO 대상’ 친환경경영 공공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은 박우정 고창군수(오른쪽)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우정 고창군수 ‘한국 빛낼 CEO 대상’

친환경경영 공공부문 수상

박우정 고창군수가 ‘2016 한국의 미래를 빛낼 CEO 대상’ 친환경경영 공공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월간조선이 주최하고 조선일보,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2016 한국의 미래를 빛낼 CEO 대상’은 각 산업군에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성과를 창출해 사회, 경제,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한국의 경영 선진화’를 이끌고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선정해 시상한다.

국내 최초로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고 미래 핵심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생태

환경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고창군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이상적인 삶의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친환경정책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고 있다.

군은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를 2017년까지 건립해 개발과 보존의 균형 속에서 체계적 관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 고창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록 추진, 해양생태벨트개발 등 각종 친환경정책을 통해 청정한 생태도시 고창의 이미지를 더욱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우정 군수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아름답고 청정한 생태도시 고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고창=김성규 기자



박우정 고창군수가 2016 한국의 미래를 빛낼 CEO 대상·친환경경영 공공부문 2년 연속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고창군 제공

박우정 고창군수 '미래 CEO·친환경경영 대상'

박우정 고창군수가 2016 한국의 미래를 빛낼 CEO 대상, 친환경경영 공공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고창군은 이번 '2016 한국의 미래를 빛낼 CEO 대상' 수상에 앞서 지난 28일 '2016 대한민국 경영대상' 친환경경영대상 공공부문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며 전국 최고의 친환경정책 지지체임을 입증했다.

'2016 한국의 미래를 빛낼 CEO 대상'은 월간조선이 주최하고 조선일보,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성과를 창출, 사회·경제·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한국의 경영 선진화를 이끌고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선정 시상하고 있다. 고창=남궁경종 기자



박우정 고창군수는 '2016 한국의 미래를 빛낼 CEO 대상' 친환경경영 공공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고창군 전국 최고 친환경 정책 증명

박 군수 친환경경영상 수상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등 생태환경분야 정책 선두

박우정 고창군수가 '2016 한국의 미래를 빛낼 CEO 대상' 친환경경영 공공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고창군은 이번 '2016 한국의 미래를 빛낼 CEO 대상' 수상에 앞서 지난 28일 '2016 대한민국 경영대상' 친환경경영대상 공공부문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며 전국 최고의 친환경

경영정책 지지체임을 증명하고 있다.

'2016 한국의 미래를 빛낼 CEO 대상'은 월간조선이 주최하고 조선일보,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고 있다.

이 상은 각 산업군에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성과를 창출해 사회, 경제, 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고 '한국의 경영 선진화'를 이끌고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선정해 시상했다.

국내 최초로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고 미래 핵심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생태환경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고창군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이상적인 삶의 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친환경정책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고 있다.

군은 고창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를 2017년까지 건립해 개발과 보존의 균형 속에서 체계적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고창갯벌의 세계자연유산등록 추진, 해양생태벨트 개발 등 각종 친환경정책을 통해 청정한 생태도시 고창의 이미지를 더욱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김준원기자

박우정 고창군수 '미래 빛낼 CEO 대상'



각종 친환경정책 추진 공로 친환경경영 공공부분 수상

박우정 고창군수가 지난달 30일 '2016 한국의 미래를 빛낼 CEO 대상 친환경경영 공공부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사진> 이 상은 월간조선이 주최하고 조선일보,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해 각 산업군에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 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여 사회, 경제, 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는 등 '한국의 경영 선진화'를 이끌고 있는 우수 기업과 공공기관 CEO를 선정, 시상함으로써

써 혁신을 이끌고 있다.

고창군은 고창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를 2017년까지 건립해 개발과 보존의 균형 속에서 체계적 관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 고창갯벌의 세계자연유산등록 추진, 해양생태벨트개발 등 각종 친환경정책을 통해 청정한 생태도시 고창의 이미지를 더욱 더 강화하고 있는 공로가 인정받았다.

또 국내 최초로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미래 핵심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생태환경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는 고창군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이상적인 삶의 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친환경정책을 꾸준히 실

천하고 있는 점도 공적에 들어 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수상소감을 통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가꾸어 나가는 것은 인류가 꾸준히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아름답고 청정한 생태도시 고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이번 '2016 한국의 미래를 빛낼 CEO 대상' 수상에 앞서 지난 28일 '2016 대한민국 경영대상 친환경경영대상 공공부분'을 2년 연속 수상하는 등 전국 최고의 친환경정책 지자체임을 확인시키고 있다. /고창=신동일기자·sd1@

고창군 '미래 빛낼 CEO 대상' 영예

친환경경영 공공부문 2년 연속 수상 달성 생물권보전지역·생태갯벌 등 업적 평가

박우정 고창군수가 '2016 한국의 미래를 빛낼 CEO 대상' 친환경경영 공공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고창군은 이번 '2016 한국의 미래를 빛낼 CEO 대상' 수상에 앞서 지난 28일 '2016 대한민국 경영대상' 친환경경영대상 공공부문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며 전국 최고의 친환경정책 지자체임을 증명하고 있다.

'2016 한국의 미래를 빛낼 CEO 대상'은 월간조선이 주최하고 조선일보,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고 있다.

이 상은 각 산업군에서 현실에 안주

하지 않고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성과를 창출해 사회, 경제, 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고 '한국의 경영 선진화'를 이끌고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선정해 시상했다.

국내 최초로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고 미래 핵심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생태환경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고창군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이상적인 삶의 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친환경정책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고 있다.

군은 고창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를 2017년까지 건립해 개발과 보존의

균형 속에서 체계적 관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 고창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록 추진, 해양생태벨트개발 등 각종 친환경정책을 통해 청정한 생태도시 고창의 이미지를 더욱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우정 군수는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가꾸어 나가는 것은 인류가 꾸준히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이며 고창의 청정한 자연환경 또한 꾸준히 관리해 나가는 앞으로의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에 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아름답고 청정한 생태도시 고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고창=박용관 기자(sc0747@)

고창군 '미래 빛넬 CEO 대상' 영예

친환경경영 공공부문 수상

박우정 고창군수가 '2016 한국의 미래를 빛넬 CEO 대상' 친환경경영 공공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고창군은 이번 '2016 한국의 미래를 빛넬 CEO 대상' 수상에 앞서 지난달 28일 '2016 대한민국 경영대상' 친환경경영대상 공공부문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며 전국 최고의 친환경정책 지자체임을 증명하고 있다.

'2016 한국의 미래를 빛넬 CEO 대상'은 월간조선이 주최하고 조선일보,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고 있다.

이 상은 각 산업군에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성과를 창출해 사회, 경제, 문화 발

전에 이바지 하고 '한국의 경영 선진화'를 이끌고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선정해 시상했다.

국내 최초로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고 미래 핵심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생태환경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고창군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이상적인 삶의 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친환경정책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고 있다.

군은 고창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를 2017년까지 건립해 개발과 보존의 균형 속에서 체계적 관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 고창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록 추진, 해양생태벨트개발 등 각종 친환경정책을 통해 청정한 생태도시 고창의 이미지를 더욱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임동갑기자

고창군, 미래를 빛낼 CEO 대상

친환경경영 공공부문

박우정 고창군수가 '2016 한국의 미래를 빛낼 CEO 대상' 친환경경영 공공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군은 이번 '2016 한국의 미래를 빛낼 CEO 대상' 수상에 앞서 지난달 28일 '2016 대한민국 경영대상' 친환경경영 대상 공공부문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며 전국 최고의 친환경정책 지자체임을 증명하고 있다.

'2016 한국의 미래를 빛낼 CEO 대상'은 월간조선이 주최하고 조선일보,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고 있다.

이 상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성과를 창출해 사회, 경제, 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고 '한국의 경영 선진화'를 이끌고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선정해 시상했다.

국내 최초로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고 미래 핵심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생태환경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고창군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이상적인 삶의 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친환경정책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고 있다.

군은 고창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를 2017년까지 건립해 개발과 보존의 균



박우정 고창군수(사진 우)와 월간조선 문갑식 편집장.

형속 체계적 관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 고창갯벌의 세계자연유산등록 추진, 해양생태벨트개발 등 친환경정책을 통해 청정한 생태도시 고창의 이미지를 더욱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우정 군수는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가꾸어 나가는 것은 인류가 꾸준히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이며 고창의 청정한

자연환경 또한 꾸준히 관리해 나가는 앞으로의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에 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아름답고 청정한 생태도시 고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신익희기자/syhee5311@hanmail.net

고창군, 2016 대한민국 경영대상

친환경경영 공공부문

2년연속 수상 '영예'

박우정 군수가 지난달 30일 '2016 한국의 미래를 빛낼 CEO 대상' 친환경경영 공공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군은 이번 '2016 한국의 미래를 빛낼 CEO 대상' 수상에 앞서 지난달 28일 '2016 대한민국 경영대상' 친환경경영대상 공공부문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며 전국 최고의 친환경정책 지자체임을 증명하고 있다.

'2016 한국의 미래를 빛낼 CEO 대상'은 월간조선이 주최하고 조선일보,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고 있다.

이 상은 각 산업군에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성과를 창출해 사회, 경제,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한국의 경영 선진화'를 이끌고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선정해 시상했다.

국내 최초로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고 미래 핵심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생태환경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군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이



지난 30일 '2016 한국의 미래를 빛낼 CEO 대상' 친환경경영 공공부문 수상을 차지한 박우정 고창군수가 상패를 들어보이고 있다.

상적인 삶의 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친환경정책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고 있다.

군은 고창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를 내년까지 건립해 개발과 보존의 균형 속에서 체계적 관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 고창갯벌의 세계자연유산등록 추진, 해양생태벨트개발 등 각종 친환경정책을 통해 청정한 생태도시 고창의 이미지를 더욱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우정 군수는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가꾸어 나가는 것은 인류가 꾸준히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이고 고창의 청정한 자연환경 또한 꾸준히 관리해 나가는 앞으로의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에 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이제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청정한 생태도시 고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박동현 기자

고창군 '2016 한국의 미래를 빛낼 CEO대상' 수상

친환경경영 공공부문 2년 연속 선정 '쾌거'

박우정 고창군수가 '2016 한국의 미래를 빛낼 CEO 대상' 친환경경영 공공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고창군은 이번 '2016 한국의 미래를 빛낼 CEO 대상' 수상에 앞서 지난 28일 '2016 대한민국 경영대상' 친환경경영대상 공공부문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며 전국 최고의 친환경정책 지자체임을 증명하고 있다.

'2016 한국의 미래를 빛낼 CEO 대상'은 월간조선이 주최하고 조선일보,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고 있다.

이 상은 각 산업군에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성과를 창출해 사회, 경제, 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고 '한국의 경영 선진화'를 이끌고 있는 기업

과 공공기관을 선정해 시상했다.

국내 최초로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고 미래 핵심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생태환경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고창군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이상적인 삶의 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친환경정책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고 있다.

군은 고창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를 2017년까지 건립해 개발과 보존의 균형 속에서 체계적 관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 고창갯벌의 세계자연유산등록 추진, 해양생태벨트개발 등 각종 친환경정책을 통해 청정환 생태도시 고창의 이미지를 더욱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우정 군수는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가꾸어 나가는 것은 인류가 꾸



박우정 고창군수가 '2016 한국의 미래를 빛낼 CEO 대상' 친환경경영 공공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준히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이며 고창의 청정한 자연환경 또한 꾸준히 관리해 나가는 앞으로의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에 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아름답고 청정한 생태도시 고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고창=조종욱 기자